

이번에는 2강입니다.

음운변동 부분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정리를 해볼까요?

음운변동에는 네 가지가 있었죠.

교체가 있고 탈락이 있고 축약이 있고 첨가 현상이 있죠.

편하게 교체는 바뀌는 거고 탈락은 빠지는 거고

축약은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첨가는 뭔가 새롭게 생기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교체 안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 음절의 끝소리.

그런데 뒤에 문제 풀면서 또 선생님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겠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라는 이 높을 사실 정확하게 명칭을 잡아주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평파열음화가 더 어울리는 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문제 풀면서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할게요.

일단 지금은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평파열음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평음, 즉 예사소리이면서 파열음인 거.

어떻게 외워요?

바다가 해도 괜찮고 비둘기, 이렇게 외워도 괜찮아요.

그래서 ㅂ, ㄷ, ㄱ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ㅂ, ㄷ, ㄱ으로 바뀌는 거.

이거로 기억해주는 게 사실 좋아요.

그리고 비음화 있죠.

비음 아닌 게 비음으로 바뀌는 거.

유음 아닌 게 유음으로 바뀌는 거.

구개음화.

그다음에 된소리되기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교체 현상을 잡아냈었고요.

그다음에 탈락 현상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야기 안 할래.

그런데 이 탈락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크게 자음도 탈락하고

모음도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자음 탈락, 모음 탈락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자음 탈락 같은 경우에는 어간과 어미.

그러니까 동사나 형용사에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면서 빠지는

어간 쪽에 ㅅ이 빠진다는지 ㄷ이 빠진다는지

이런 변화들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간 쪽에 ㄱ, 모음 빠지고 이런 것들도 다 있는데.

한 가지 기억해줘야 되는 게

이 자음 탈락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자음군단순화라는 거 용어를 하나 기억해볼 법 했어요.

자음군단순화가 바로 뭐에 해당한다?

결반침이 있을 때.

결반침 중에 하나만 발음되는 거를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축약은 역시나 자음축약하고 모음축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음축약은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센소리되기로 설명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ㄱ이나 ㄷ이나 ㅂ이나 ㅈ이 ㅎ과 만나서

크, 트, 프, 츠 거센소리가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자음축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모음축약 같은 경우 모음과 모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 더하기 아 하면 와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음축약에 해당합니다.

사실 첨가가 조금 까다롭죠.

첨가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ㄴ첨가 현상하고

반모음첨가라는 거를 잡아줘야 되는데

좀 애매한 게 바로 사잇소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잇소리 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에서 사잇소리 현상에 두 가지,

이 안에 ㄴ이 덧나는 사잇소리 현상이 있고
그다음에 된소리 발음이 나는 사잇소리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애를 이거랑 어떻게 비교를 해줘야 되는지
또 애랑 애의 차이를 뒤야 되는지
이러한 문법적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사잇소리 현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독립적으로 따로,
애네들 언급 안 하고 독립적으로 따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결합을 시킨다고 할지라도 두 종류인데
애랑 애를 차이를 크게 많이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놈하고 이놈은 분명 차이가 있다.
이놈은 교체 된소리되기.
애는 사잇소리 된소리되기로 애는 필수적이라면
애는 필수적인 거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는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러한 애매함이 조금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전체 음운변동이 어떤 게 있는지
전체 그림을 그려봤고.
이거는 뒤에 문제 풀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교과 내용을 보면
2015 개정 교과서를 쓰게 되면
심화국어 부분이 있는데 그 심화국어 교과서에는
이 사잇소리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이시옷하고 사잇소리.
그런데 그 외에 2학년 문법 교과서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깊이 나가지는 않기 때문에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1번 갑니다.
가벼운 거부터 볼 수 있죠.

1번, 음절의 끝소리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형태소가 이어질 때 ㄱ, ㄴ, ㄷ, ㄹ, ㅁ, ㅂ, ㅇ에
일곱 자음, 대표음으로만 소리난다.

이 이야기하고 있군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렇게 해서 7개만 소리난다.

이거로 소리난다, 도대체 무슨 차이일지

이거는 뒤에 문제에서 나중에 볼 거예요.

다음, 다만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형태소가 이어질 때에는

음절의 끝소리가 대표음으로 바뀌지 않는다.

음절의 첫소리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예가 나왔어요.

이거죠.

지금 애는 부엌이라는 단어와 부엌이라는 단어 뒤에 나와있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무언가를 봤더니

둘이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앞에 있는 앞은 명사이기 때문에 실질형태소이고.

애는 조사이기 때문에 형식형태소.

이러면 조건이 달라지고 발음도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발음이 어떻게 정리된다?

그냥 연음이 되는 조건.

이거는 무슨 현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형식형태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반복합니다.

ㄱ이 넘어가서 연음이 되는 것이지만

애는 실질형태소가 왔을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엌 앞.

이거까지 같이 조합이 되면 발음이 어떻게 되겠어?

이어지게 발음한다면.

만약 끊어 읽으면 이래도 돼요.

부엌 압, 이래도 되는 거지만

이어서 발음한다면 부어갑,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이야기죠.

핵심은 뭐냐? 이놈입니다.

ㄱ이 대표음인 ㄱ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뭐가 됩니까?

끝소리가 ㄷ이나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와 만나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는 이거야.

두 번째 거를 보기를 보고 열심히 읽어야 아 이게 구개음화구나, 늦어요.

많이 풀잖아요?

뒤에 있는 ㄷ, ㅌ, ㅈ, ㅊ 이런 것만 봐도 이거 구개음화?

비슷한 다른 게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자마자 구개음화구나?

확인이 돼줘야 돼요, 곧바로.

그래서 같이나 굳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잡혀있었던 거죠.

따라서 이 원리에 따라 두 가지의 발음을 적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찾으면 되는 거였죠.

당연히 애는 실질이다, 형식이다?

형식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

대표음 처리할 것 없이 연습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여기서 가마소틀,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 맞죠?

다음 애 마찬가지로 물받이인데

여기서 물을 받는 물건이라는 이는 접미사가 되죠.

그래서 접미사는 실질이에요, 형식이에요?

애 역시 형식이죠.

그러므로 연습합니다.

연음하죠?

그런데 연습을 했는데 뭐랑 만난다? ㅣ랑 만난다.

이래버리면 어떤 일이 생긴다? 구개음화.

두 번째 조건인 구개음화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디가 아닌 지가 되는 현상이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 답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구개음화의 조건을 진짜 정확하게 기억해주세요.

왜?

| 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 앞.

넓게 보게 되면 | 반모음으로 시작하는 ㅋ나 ㆁ나

이런 것도 포함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이런 거를 가마소출로 발음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발음해버린다면

ㅌ을 구개음화를 시켰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 모음이 아닌 ㅡ 모음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늘 발음을 할 때 문법 규칙을 적용하면서 발음을 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가마소출 봤어요.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해서 누가 지적질하면서

가마소출이 뭐냐? 가마소틀이지.

이러지도 않아요.

그러나 문제를 풀 때만큼은 그 조건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다음 갑니다.

2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2번, 안 쓰겠습니다.

이거 뭐야? 동화의 방향을 물어보고 있어.

순행동화.

그런데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순행동화, 역행동화의 방향을

순행동화라고 이야기하니까 뒤에서 앞에서, 그게 아니라

순행은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야.

앞에서 뒤로 동화를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바뀌는 거는 뒤에 거가 바뀌어야죠.

이해됐습니까?

즉 1번 답지 보면 결국 발음 어떻게 돼요?

중노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ㅇ이 르에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이 방향을 따지는 거를 순행이라고 한다는 거죠.

나머지 2, 3, 4, 5 발음 어떻게 돼요?

장년, ㄱ이 ㅇ으로 바뀌죠?

다음 실라, 르로 바뀌죠.

밤물, ㅁ으로 바뀌죠.

궁민, ㅇ으로 바뀝니다.

다 뒤에서 앞으로 영향을 준 거, 역행입니다.

됐어요.

3번 문제 가볼게요.

3번 문제 보니까 그림으로 잘 그려놨어요.

자음군단순화 현상인데,

첫 번째 준 자료는 이 자료였어요.

이렇게 돼있대.

2개의 겹받침이 있는데 일명 자음군이 되죠.

자음의 떼거리, 자음군인데 애가 뭐가 빠져서?

앞쪽 거가 빠지는 현상.

그래서 결국 뒤에 거가 남는

이런 단어가 형성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반면 ㄱ과 같이 뒤에 거가 빠지는 것,

그러니까 앞에 거가 남는 거는 뭐냐.

그거끼리 묶어본 거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볼까요?

이게 바로 자음군단순화 현상인데.

결국 겹받침을 하나 탈락시키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음탈락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자음탈락 중에서도

용어 하나를 기억해줘야 될 게 자음군단순화라고 설명을 한 거 아닙니까?

국어의 접받침은 총 몇 개 있다? 11개가 있었죠.

11개의 접받침이 있습니다.

적어본다면 우선 ㄱ 있겠고요.

ㄴ 같은 거.

그다음에 ㄷ, ㄷ, ㄷ.

그다음에 ㄹ, ~하지 않다.

그다음에 ㄴ, 이렇게 있으면 읽다라든지 늙다라든지

이런 단어가 있겠죠.

그다음에 ㄷ, 삶이라는 단어 있을 것이고.

ㄷ, 없다.

ㄷ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읊이나 굶이라는 두 단어에는 존재합니다.

외곶수, 외곶 이 ㄷ 쓰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ㄷ 같은 경우 읊다 같은 거.

ㅌ부터 써야 되겠군요.

ㄷ, ㄷ.

읊다.

그다음에 ㄷ, ㄷ, ㄷ 이런 거 있겠죠.

그다음에 ㅌ 하면 없다 이런 단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총 11개인데.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이 접받침 11개 중에서 일단 이놈은 빼놓고 시작하세요.

다른 문제에서도 나올 거야.

ㄷ하고 ㄷ의 변화는 굉장히 각양각색, 변화가 좀 큼니다.

그러니까 뒤에 어떤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느냐에 따라

조화가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일단 빼놓고 시작하면 돼.

애는 같이 꺼서 문제 안 낸단 말이야.

그러면 애 2개를 뺐어.

그러면 몇 개가 남아요? 9개.

이 9개의 접받침 중에 뭐를 기억하면 되느냐.

뭐 기억하면 돼요?

레고, 레몬, 루피.

뭐라고요?

레고, 레몬, 루피.

그래서 리, 레, 르 이 3개의 경우와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구분하면 된다는 거죠.

이 9개 중에 레고, 레몬, 루피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레고, 레몬, 루피와 나머지 접받침들.

이렇게 해서 3개와 6개로 쪼개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고, 레몬, 루피의 경우에는 뭐가 발음되는 것?

뒤에 것이 발음되죠.

그래서 결국 앞에 거가 탈락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나와있으면 익다, 삼, 읍다.

표이 다시 ㅂ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읍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물론 예외가 있어요.

어떤 게 예외입니까?

여기 레고, 레몬, 루피는 뒤에 거가 남는 거기는 한데

그중에 예외는 것은 바로 리 계열.

여기에 나와있는 리 계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있을 때 익따, 익찌, 일꼬 이렇게 되죠.

그래서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게 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ㄴ로 선택이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기억하세요.

레고, 레몬, 루피 기억하면서 동시에 예외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예외는 뭐다?

리 어간 받침 뒤 ㄱ 어미,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ㄱ 어미가 왔을 때.

예를 들면 읽고, 읽거나 이런 것들 나왔을 때에는

앞에 거로 선택이 되는 예외가 걸립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앞에 거가 선택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여기도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어떤 겁니까?

ㄹ 쪽에서 예외가 걸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애 같은 경우에는 예외 조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거가 선택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알따, 알꼬, 알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어떤 게 있느냐?

ㄹ 계열 중에서 두 가지.

바로 애와 애예요.

그래서 밝은 무조건 예외 들어갑니다.

뒤에 거로 선택이 돼요.

밥따, 밥꼬, 밥찌 이런 식으로 발음되는데

애는 널따, 널꼬, 널찌로 발음되지

넙따, 넙꼬, 넙찌로 발음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넓다는 문제가 없는데 넓로 시작하는 합성나 파생어.

넙쪽하다라든지 아니면 넙똥글다라든지

이러한 단어들이 바로 뒤에 거로 선택이 되는 거, 예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꾸 반복하다보면 외워져요.

그러나 지금 이 표에서는 더 쉽게 낸 거야.

왜? 지금 보세요.

선생님이 예외를 잡아준 거는

어쨌든 어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넓다, 밝다 이거 다 동사들이잖아.

동사, 형용사 이런 용언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답지에는 다 뭐가 나왔냐면 명사만 나왔어요.

그러면 예외는 신경쓸 거 없이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여기서 레고, 레몬, 루피를 지우면 돼.

답지 2번에 답 있죠? 레고.

그다음에 3번에 삶 있죠, 레몬.

그다음에 4번에 삶 있죠, 지우고.

5번에 닭, 삶 다 들어가있죠.

다 지워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1번 딱 남죠.

그래서 값, 그리고 녀.

물론 풀 수 있어 1학년 문제니까.

여러분이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해서

내가 읽을 때 이러지 않으면 이거 누가 못 풀겠어요?

그러나 이 문제가 괜찮은 구조의 문제라는 거죠.

이거를 조금 어려운 예문들로 들게 되면

그래도 여러분이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익따, 일따? 이려고 헛갈려하고 있으면 못 풀어요.

규칙을 외우셔야 돼요.

그다음 4번 갑니다.

애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4번은 여기에서 무슨 현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래요.

교체, 탈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이런 문제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문제.

다음 갑니다.

5번 가보도록 하죠.

5번인데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의 탈락에 대해 이해한다고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A 부분, 돌, 달 활용을 이야기했을 때

돌고, 문제 없죠.

그런데 돌 더하기 니가 붙었더니

어간 돌 뒤에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었더니

결과물이 도니,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1번 답지, a에서는 어간의 끝소리 ㄹ이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거를 볼 수가 있었다.

맞는 이야기군요.

그다음에 2번 가보도록 하죠.

b입니다

b를 보게 되면 낱다인데 낱 뒤에 고가 붙으면 형태 그대로 유지.

그런데 어미가 아가 붙었다고 이야기했더니

애가 낱아로 형태가 잡혀요.

그런데 발음은,

우리는 음운변동을 볼 때는 형태를 보는 게 아니에요.

발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발음을 봤더니 뭐가 벌어졌어요?

둘의 차이는 뭘니까?

둘 다, 잘 보세요.

a나 b나 음운변동 현상으로 봤을 때에는 탈락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애는 음운 상의 탈락이, ㄹ이 빠졌지 않습니까?

음운 상의 탈락이 글자 형태에 반영이 된 놈이라면

애는 실제로는 발음 ㅎ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형태로는 ㅎ 안 빠지잖아요, 발음 쓰잖아요.

표기를 쓰잖아요.

그래서 형태에 반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탈락 현상의 경우에는 형태에 반영이 되는 탈락이나

되지 않는 탈락이나를 가지고 문제를 자꾸 내고 있어요.

이거 기억해줘야 돼.

그래서 2번 답지가 틀렸죠.

지금 형태에 반영이 되는군, 이라고 했는데

반영되지 않는군,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추가로 예를 들면,

긫다, 선을 긫다.

이게 바로 불규칙활용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어가 붙었을 때.

애는 탈락해요, 안 해요?

그서라고 안 하잖아요, 그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애 탈락이 되는 거죠.

형태에 반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형태에 반영이 되죠.

왜? 쓸 때 어떻게 써야 됩니까?

역시나 그어, 라고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형태에 반영이 되는 예가 되는 겁니다.

3번에 쓰다 같은 경우에는

씨죠, 쓰+어가 붙었더니 결과물이 씨, 글자를 씨.

이렇게 됐단 말이야.

아니면 입맛이 씨, 이렇게 됐단 이야기죠.

그러면 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으가 빠진 거군요.

그래서 으 탈락 현상이죠.

3번 설명 으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 어미 앞에서 탈락되었다.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가다.

가다의 어간에 가에 연결어미 아 또는 명령형어미 아 이렇게 했는데

가아라고 안 하고 가, 이런 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음이라고 하죠.

같은 음이 나왔을 때 하나가 빠져야 되는

바로 4번 설명 동일 음운이 연결됐을 때 한 음운이 탈락했다.

5번, a부터 d까지를 봤을 때

음운의 탈락에는 이렇게 자음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모음이 빠지는 경우도 있었다는 설명 맞습니다.

6번 설명드릴게요.

6번이 뭐와 관련된 문제냐면

바로 이놈과 이놈의 차이를 알겠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놈과 이놈의 차이를 알겠느냐는 문제가 바로 6번 문제예요.

이 6번 문제가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보기에 나와있는 ㄱ과 ㄴ, ㄷ은

사실 뒤에 한번 더 볼 겁니다.

언제 보냐면 어문규정에 표준발음법 할 때 된소리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된소리규정에 이 세 가지 조항들이 있고

그거를 맞춰서 찾는 문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기에 적어놓으세요.

보기는 전부 다 이놈들.

즉 교체 된소리 현상이라고 적어두시면 돼요.

조건이 딱 정확해.

첫 번째 ㄱ에 받침 ㄱ, ㄷ, ㅂ 뒤에

ㄱ, ㄷ, ㅂ, ㅅ, ㅈ 오잖아요?

된소리됩니다.

다음요.

두 번째 동사, 형용사, 어간 있겠죠.

그 동사, 형용사, 어간 받침 ㄴ, ㄹ에

어미 첫소리 ㄱ, ㄷ, ㅅ, ㅈ이 나오면

된소리로 발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외우지 않아도 좋아요.

다음, 관형사형어미 ㄴ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오게 되면

된소리로 발음이 돼요.

이거는 조건이 정해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조건에 맞춰지는 글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된소리되기가 돼요.

그런데 애는 사잇소리라고 하지는 않아요.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반복해요.

6번 문제 보기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문제는 애랑 애를 비교하는 문제라고 했죠.

차이를 구별하면 돼요.

뒤을 외울 거냐?

애를 뒤하러 외우냐, 애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뒤소리 발음이 나왔을 때 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애 외우셔야 돼요.

사잇소리 뒤소리는 조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합성명사여야 돼요.

다른 거 안 돼, 명사여야 돼.

그리고 합성된 명사, 즉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어야만 하죠.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어야만 해.

두 번째 조건.

형태를 보셔야 돼요.

A에 받침이 있을 거야.

이게 받침이, 그리고 B에 초성이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A의 받침과 B의 초성이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A의 받침이 울림소리여야 돼요.

그러면 울림소리라는 거는 모음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그다음에 ㄴ, ㄹ, ㅁ, ㅇ이 여기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둘 다 괜찮아요.

그다음 두 번째 어근 앞에, 우리 처음에 나와있는 거.

여기에 있을 때에는 이때는 뒤이 필요하냐면,

안울림소리가 필요해요.

이 조건이야.

그래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할게요.

합성명사인데 그 합성명사에 앞쪽에 받침이 울림소리,

뒤에가 안울림소리로 연결돼있을 때

뒤소리가 나면 사잇소리 현상이야.

이 말 뜻을 잘 기억해야 돼요.

애는 지금 이 위에있는 교체 뒤소리되기는

6번에 나와있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으면 뒤소리가 돼요.

된소리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런데 애는 이 조건이 맞다고 해서

무조건 된소리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 조건에 된소리로 발음이 되는 거를

사잇소리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규칙이 아니라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정답이 2번이잖아요?

밤길, 이거부터 먼저 정리해봅시다.

모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밤길이 2번 답지에 ㄱ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쉽기는 해요.

ㄱ을 보면 받침 ㄱ, ㄷ, ㅂ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된소리로 발음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애가 된소리로 발음이 돼요, 안 돼요?

발음은 되거든요, 된소리의 발음 나옵니다.

밤길이라고.

그런데 이 조건을 봤을 때

앞애가 ㄱ의 조건에 ㄱ, ㄷ, ㅂ이 아닌 ㅁ이지 않습니까?

ㄱ 조건 아니야, 그래서 답은 2번이야.

이렇게 풀면 되기는 하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외워줄 때는 이유가 있어요.

더 어려운 문제, 더 고난도의 문제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내가 아는 지식으로 풀려고.

잘 보세요, 애가 이 조건에 해당합니다.

밤하고 길은 어근과 어근이에요.

앞에 있는 ㅁ은 무슨 소리예요?

울림소리예요.

뒤에 있는 ㄱ은 뭐예요?

안울림소리예요.

그런데 발음은 된소리발음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사잇소리 현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애는 애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애는 조건에 맞으면 무조건 된소리 발음이 나오지만
애는 조건이 맞다고 무조건 된소리 발음이 되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애 발음 뭐예요?

김밥이죠.

그런데 여러분, 김밥으로 발음할 수 있는 게 얼마 안 된 거 아세요?

최근 2년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이 발음을 인정한다고 한 거지.

원래 2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는 발음이 안 맞았다.

사전 상에 보면 어떻게 발음이 돼있었냐면,

김밥이었어요.

그런데 애는 보면 조건이 일단 합성어잖아요.

김, 밥.

어근과 어근의 조합.

앞에 ㄹ 울림소리, ㅂ 안울림 예사소리.

조건 딱 들어맞는데 왜 애는 된소리가 안 됩니까?

그러면 누가 설명 못해요.

그전까지는 김밥으로 발음하는 게 표준발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는 사잇소리 현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2년 전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이것도 같이 인정했어요.

여러분, 사전 보잖아요?

이 발음하고 이 발음 둘 다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 김밥 먹었니? 라고 해도

그거 틀린 발음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김밥 먹었니? 라고 했다면

아무리 조건에 맞아도 사잇소리 현상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김밥이라고 발음을 해야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를 하고 있는 거는

사잇소리 현상은 이 조건 맞으면 무조건 된소리가 나는 것.

이렇게 기억하면 안 돼요.

이 조건에 더해서 된소리까지 나와 사잇소리 현상으로 인정하는 거고

이 된소리되기는 지금 보기에 나와있는 조건처럼

조건에 맞춰서 환경이 잡히면 무조건 된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1번 설명 맞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도 께안다를 보면,

어디에서 된소리가 발음이 됩니까?

이거죠.

따로 되니까.

그런데 이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껴안까지가 어간이고 그다음 다가 어미이기 때문에

어간 ㄴ 뒤에 있는 ㄷ으로 시작하는 놈이 된소리발음이 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4번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봐요.

지금 보면 만날 사람이나 할 수, 이런 거 보니까

위에 있는 표의 보기.

하다, 라는 동사와 수, 라는 의존명사.

즉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발생하는 된소리발음이죠.

할 수, 이렇게.

그래서 4번은 단어와 단어 사이에 적용된다는 설정도 맞는 겁니다.

단어는 곧 다른 말로 뭐다? 품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사와 의존 명사.

5번에 기쁜 소식의 경우에는 관형사형 ㄴ 뒤에,

애는 관형사형 어미가 ㄹ인데

기쁜 소식 같은 경우에는 관형사형 어미가 ㄴ이잖아요.

그런데 애는 기쁜 소식, 이렇게 발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관형사형 어미라고 할지라도

ㄹ 뒤에 와야지만 된소리 발음이 난다는 조건에 적합한 거죠.

그래서 5번 설명도 맞고요.

7번 가보도록 합니다.

7번은 보기 내용을 보게 되면ㅎ 탈락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문제는 만약에 틀리잖아? 그러면 네 실수.

무슨 이야기냐?

답을 끝까지 안 보는 실수를 많이 해, 그러면 틀려요.

인정?

보면 1번 답지 같은 거를 답으로 선택해버리고

밑에 거 안 보고 넘어가는 그런 일인 거죠.

1번이 탈락이에요?

많이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그대로 놔둔 이유가 있어요.

답지에 이렇게 주어졌어요.

보이는 게 있다 없네?

없어, 탈락.

제발 그러지 마.

이게 어떻게 탈락이야, 축약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ㅎ 받침 뒤나 나ㅎ, ㅇㅎ 이거 뒤에는 조심해야 돼요.

실수합니다.

혹 내가 1번이 탈락이네? 라고 썼다 치더라도

2번만 보더라도 뭐지? 축약.

1번도 축약, 이렇게 해서 다시 실수를 보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밑에 내려가다보면.

3번의 경우에는 어떤 변화야?

먼저 는ㅎ이 으으로 음절의 끝소리가 적용이 돼요.

그러고 나서 비음화가 한 번 더 벌어지는 거죠.

탈락은 없습니다.

4번도 축약이고 5번이죠.

좋아요, 라고 할 때ㅎ이 탈락된 그런 것이고요.

8번, 음운변동 2개 일어난 거를 따져보래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된소리.

음-끝하고 된소리되기가 조합된 거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1번이 국밥이고요.

2번이 단는이고요.

다 쉬운 거죠.

이렇게 된 거죠.

발음을 보게 되면 애는 국밥, 뭐만 실현됐어요?

된소리만 있네요.

애는 단는, 이렇게 된 거죠.

뭐만 있습니까?

음-끝만 있어요, 이게 아니지.

음절의 끝소리랑, 잘 보세요.

음절의 끝소리 현상은 자체 변화죠.

우리가 이 세 놈들.

비음화나 유음화나 구개음화나

이렇게 세 놈들하고는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뭐냐?

애네들은 어쨌든 인접한 음운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변화가 되는

그런 일들이라면,

애는 자체 변화.

그래서 지금 이거 음절의 끝소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ㄷ이 그냥 자기가 혼자 있어도 ㄴ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뒤에 나와있는 ㄴ이 앞에 영향을 줘서 바뀐 거니까

이거 비음화잖아요.

즉 음-끝도 없고 된소리도 없는 거예요.

다음 텃개의 경우에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어떻게 됩니까?

ㅍ은 받침에서 발음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ㅍ으로, 이게 음-끝이죠.

그리고 발음이 뒤에 껴로 되는 거.

된소리되기, 둘 다 있지 않습니까?

정답 걸렸고요.

애 발음 한번, 물론 바로 설명에 나와있지만.

어떤 게 맞죠?

선생님이 물어본 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ㄴ하고 ㄹ이 이렇게 붙어있을 때

ㄴ이 ㄹ로 바뀌냐, ㄹ이 ㄴ으로 바뀌냐.

그래서 공필력이예요, 공편역이예요?

일단 옆에 답이 나와있죠, 이미 답지에 있는데.

뭐가 맞는 거죠? 애가 맞아요.

이게 예외예요. 무슨 이야기냐?

이거 하나 기억해주면 좋습니다.

ㄴ하고 ㄹ, ㄹ하고 ㄴ.

인접음운이 어쨌든 ㄴ하고 ㄹ이 서로 만나게 됐을 때

앞쪽에 받침에 ㄴ이 있고 그다음에 오는 ㄹ이 오든

아니면 받침에 ㄹ이 오고 그다음에 ㄴ이 오든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편적으로 ㄹ의 힘이 세다고 기억하면 좋아요.

그러면 결국 ㄴ이 뭐로 바뀔 거라는 이야기죠?

ㄹ로 변화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지간한 경우라면, 정말 어지간한 경우라면

결국 유음화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실제로 애도 앞에 공 자만 빼보잖아요.

그러면 애 발음 어떻게 하세요?

권역, 이렇게 발음합니까?

권력으로 발음하죠.

애는 또 ㄹ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ㄹ이 뒤에 있는 ㄴ을 억눌러서 ㄹ로 바꿔주는

그런 유음화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단어들이 이렇게 예외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오히려 비음화 현상.

ㄹ이 비음화되는 현상이라고 보는 건데

이런 거는 표준발음법의 예외를 몇 가지 알려줍니다.

그중에 자주 나오는 거 하나가 바로 이 단어.

그래서 이 단어는 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헛갈려하면 공필력 아니고 공편력이라고

이거는 그냥 단어를 기억해주는 게 좋겠다.

이것도 그 예외에 걸리거든요.

붙이다는 어떤 발음 나오니까?

구개음화가 발생하죠.

그래서 부치다로 걸리게 되는 거.

교체 현상만 벌어지게 되는데 아무것도 안 걸리네요.

다음, 9번 문제 가보도록 합니다.

ㄱ하고 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ㄱ하고 ㄴ은 축약이나, 탈락이나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ㄷ은 자음 축약, 자음 탈락이나

아니면 ㄹ의 경우에는 모음 축약, 모음 탈락이나

이거 물어보는 거죠.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1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싫다의 경우에는 일단 ㅎ이 빠진 게 아니라고 했어요.

ㅎ이 ㄷ과 줄어들어는 거죠.

그러니까 ㄱ에 해당하죠, 축약이죠.

그런데 이 ㅎ이 ㄷ과 결합됐으니까

자음축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1번 답지는 뭐라고 있어야 돼?

ㄱ과 ㄷ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야죠.

2번은 그러면 어떻게 수정합니까?

좋아요는 ㅎ이 빠진 거잖아.

그러니까 탈락 현상이고 자음이 빠진 거기 때문에

ㄴ과 ㄷ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했겠네요.

다음 3번 갑니다.

울 더하기 는인데 우는으로 우리가 쓰고 또 읽어요.

그러면 ㄹ이 빠진 거죠.

그래서 ㄹ이 탈락했으니 ㄴ에 해당하고
자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ㄷ에 해당합니다.
결국 ㄱ, ㄷ이 아닌 ㄴ, ㄷ 이렇게 이야기해야겠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군요.

크다에 어서가 붙었어요.
그랬더니 결과물이 커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애는 모음이 빠진 탈락이죠.
그렇다면 ㄴ하고 ㄹ로 가야 되는데 정답이 됩니다.
그다음에 5번에 나누었다는 축약.
우가 어가 줄어서 축약이고 모음축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ㄱ, ㄹ에 해당한다.

10번 문제 가보죠.

10번 문제는 사실 여러분이 이 앞쪽에 나왔던
아주 단한 예 찾기 문제 보다는
10번 같은 문제가 훨씬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여러분이 아예 이 조건들을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적을 수 있어야 되고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도 적을 수 있어야 해요.
발음 들어갑니다.

없다에서의 없는 모음으로 시작했어요.

실질이죠, 실질형태소죠.

그러면 그냥 ㅅ을 넘길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이게 형식이다.

예를 들어 이가 붙었어요.

그러면 마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ㅅ이 넘어가지만.

없다에서의 없는 실질형태소 어근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이때 어떻게 한다? 자체 변화 해주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거랑 변화가 생긴 거죠?

ㅅ이 뒤로 바뀌어야 돼?

ㄷ으로 교체가 되겠군요.

그래서 교체되면서 넘어갑니다.

다음, ㅂ하고 ㅅ 중에서는 같이 읽지는 않죠.

하나가 빠져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ㅂ만 남고 ㅅ은 빠집니다.

그리고 뒤에 다가 아니라 따로 발음되는 거죠.

즉 무슨 현상 벌어졌어요?

ㅅ이 ㄷ으로 바뀌는 교체 현상.

그다음에 탈락 현상.

ㄷ이 ㅌ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 교체 현상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적용되는 거는 교체 일어났고

그다음에 탈락 일어났고요.

이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이 문제가 지금 뭐랑 뭐가 벌어졌는지만 찾으려면 되는 거지

뭐가 몇 번 벌어졌는지를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도 뒤에 나오잖아.

뭐가 몇 번 벌어져서 음운의 개수가 늘었고 줄었고 이런 거를 자꾸.

그러니까 음운변동도 옛날에는 그냥 교체냐 탈락이나

이거만 알면 되는 건데 종종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어요.

다음 갑니다.

한 가지.

애는 어떻게 돼야 될까, 발음을?

똑같아요.

이거 지금 실질이죠.

있다도 여기에 어근 실질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이것도 ㄷ이 ㄷ으로 바뀌어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자기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마딤따.

뭐라요? 마딤따.

맞아요, 이 발음?

맞아요.

그러면 마신타는?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예외입니다.

잘 보세요.

원칙은 애여야 돼요.

원칙은 애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원칙에 의해서 마딤따라고 발음하는 거 말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마신타라고 하지

마딤따라고 잘 안 하거든요.

마딤따라고 하면 약간 혀 짧은 느낌 나고.

그래서 이거를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이거는 어문 규정에 나와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발음이 되지만

이거는 원칙 발음은 사실 아니에요.

규칙성이 없는 거죠, 이거는.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가능한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이 단어예요.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요.

원칙으로는 있어 실질이기 때문에 머딤따,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데 너 참 머딤따,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머신타라고 해서 실제 발음되는 것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틀리다고 생각하면 큰일나요.

이게 원칙 발음이에요.

이거 알겠죠?

마뎌따, 머뎌따가 원칙 발음이라는 거를 기억해주세요.

그다음 거 넘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영업용.

1차 과정은 영업농이에요. 맞습니까?

일단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 과정에 ㄴ이 비을 바꾸겠죠.

그래서 영업농이 됩니다.

즉 1차 과정에서는 첨가, ㄴ 첨가 현상 벌어지고요.

언제 첨가되냐? 이게 정리가 잘 돼있어야 돼요.

ㄴ 첨가 언제 벌어집니까?

합성어 또는 파생어일 때 앞에는 받침이 있고

뒤에가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상황일 때예요.

그래서 일단 영업+용이잖아요.

그런데 앞에는 받침이 있고 뒤에가 이, 야, 여, 요

요 걸렸습니다.

그래서 ㄴ 첨가의 조건이 맞춰지는 거.

이것도 현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벌어지는 일은 아니예요.

예를 들면 월료일이라고 발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외적인 현상들이기 때문에

사잇소리 현상이나 ㄴ 첨가 현상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규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발음해보면 나온단 말이야.

문제는 이거예요.

만약에 애가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연음하고 끝내야 돼요.

그러면 영어뽕, 이게 돼야 돼.

여러분, 영어뽕으로 발음하면 어때요?

어울리지 않죠.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발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 ㄴ 첨가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됐다?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체까지도.

첨가, 교체.

깨끗하다 어떻게 되죠?

이거 발음이 깨끗타다, 라고 소리나는 대로 써볼래?

그러면 이렇게는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정을 잘 못 찾더라고요.

어떻게 트이 나오느냐. 어떻게 나오겠어요?

1차 과정은 애가 먼저 변했기 때문이죠.

즉 시이 음절의 끝소리에 의해서

ㄷ으로 먼저 변하죠.

즉 교체 현상이 먼저 벌어졌다가

그다음에 ㅎ, ㄷ이 축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축약이 발생하여 깨끗하다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정을 찾는 게 더 중요해요.

다음 급행열차 가보도록 합시다.

애는 일단 ㅂ, ㅍ이 어떻게 돼야 돼?

함께 이루어지죠, 축약이 되죠.

그땡.

다음 이렇게 끊어집니다.

합성어고요.

그다음에 앞에는 받침이 있고 뒤에가 이, 야, 여, 요, 유

여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밑에 ㄴ 첨가가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땡열차, 되게 발음이 힘들어요.

그땡열차,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발음하면 그땡널차, ㄴ이 툭 들어오죠.

그게 바로 ㄴ 첨가 현상에 의해서요.

그래서 애는 일단 축약 현상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첨가 현상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11번 가보도록 하죠.

보기에 ㄱ부터 ㅁ을 활용하여

현대 구개음화를 탐구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ㄱ, ㄴ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 답지가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3번에 이렇게 나왔어.

그다음에 애가 ㄷ 뒤에 ㅎ이 탈락해서

구개음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소리야.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거 ㄷ 뒤에 ㅎ이 탈락했다면 무슨 일이 발생해야 돼.

ㄷ은 연음돼야 돼요.

그러면 연음돼서 이랑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치다가 돼야죠.

그런데 이거 발음 어떻게 하죠?

구치다로 발음하죠.

ㅎ 탈락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ㅎ 탈락 안 한 거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ㄷ하고 ㅎ이 축약되어서,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축약돼서 ㅌ으로 바뀌었는데 만난 게 이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애는 구치다로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ㅎ의 탈락이 아니에요.

ㄷ과 ㅎ이 축약하여,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4번, 5번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12번 이야기해볼게요.

12번, 선생님이 애정하는 문제.

이 12번을 애정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음절의 끝소리 현상, 미안해.

이거는 현상이 아니라 규칙이죠.

반드시 벌어지는 일이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이 규칙을

이렇게만 대충 외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여기서 적용됩니다.

평과열음화라는 이야기를 왜 쓰는지.

1번 가볼게요.

음절 끝에 자음이 바뀌지 않는 경우는

부엌, 간, 달, 섬, 창이다.

왜 틀렸죠? 부엌 때문이죠.

부엌은 ㄱ이 ㄱ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누가 발음할 때 부어크, 이리지 않잖아요.

2번 갑니다.

음절 끝에 자음이 예사소리일 때는 바뀌지 않는다.

위에 나와있는 예 중에서 어떤 게 걸립니까?

예를 들어 빛, 이런 단어.

ㅈ, 예사소리에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 ㅈ은 거센소리잖아요.

그래서 애를 압으로 발음하는 거 예사소리로 바꿔준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애 ㅈ은 예사소리잖아요.

이거의 거센소리는 ㅈ이고, 된소리는 ㅉ이니까.

그런데 애도 이대로 발음 안 하고 어떻게 발음합니까?

음절의 끝소리를 적용하죠.

2번 주의하셔야 돼요.

2번 맞네? 하고 넘어가면 틀려요.

예사소리라고 할지라도 바뀌어요.

왜? 이 작은 여기에 들어가있지를 않아요.

7개의 자음이 아니기 때문에.

즉 7개의 자음이 아니라면 아무리 다른 예사소리라고 할지라도

결국 바뀌어야 돼.

다음 3번, 음운변동이 일어나면

ㄱ, ㄴ, ㅂ 중 하나로 바뀐다.

아니라고요.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변화가 결국 일어난 거는 보세요.

원래 ㄴ은 ㄴ으로, 원래 ㄹ은 ㄹ로,

원래 ㅁ은 ㅁ으로, 원래 ㅇ은 ㅇ으로 움직이지만

그 외에 다른 받침들이라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변한 거는

전부 다 비둘기로만 바뀌어야 돼요.

즉 3번에 보면 ㄱ, ㄴ, ㅂ 중 하나가 아니라

ㄱ, ㄴ, ㅂ 중 하나라고 해야 됩니다.

왜?

부엌의 경우에는 ㅋ이 ㄱ으로 바뀌었죠.

가는 원래 ㄴ이니까 ㄴ으로 쓰면 되고요.

옷, ㅅ 받침 뒤로 바뀌니까?

ㄷ으로 바뀌잖아요.

빛, ㄷ으로 바뀌죠.

달, 원래 ㄹ은 ㄹ로 갑니다.

섬, 원래 ㅁ은 ㅁ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자기 자음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다른 자음이 뭔가로 바뀌어야 된다면 다 평과열음인 비둘기로 바뀌니까.

그래서 3번 틀렸죠.

4번, 밖이나 밑의 경우에 음운 변동의 예로 추가할 수가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애도 뒤로 발음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애네들도 ㄱ이나 ㄷ과 같은 된소리나 거센소리.

전부 다 ㄱ이나 ㄷ과 같은 비둘기 중에 하나로 변화가 돼야 되겠죠.

5번, 음절 끝에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이 아니라
저기 7개.

ㅅ은 발음이 안 되죠.

그다음 1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ㄱ부터 ㄷ이 음운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에 나와있는 음운변동이 뭔지를 먼저 판단하래요.

일단 ㄱ 정리해볼게요. ㄱ 뭘니까?

음절의 끝소리.

ㄴ은 뭐예요? ㄴ 첨가.

금방 나와야 돼.

ㄷ 뭘예요? 교체 된소리되기.

그다음에 ㄷ 뭘니까?

ㅎ하고 ㄷ이 줄어들어요.

오랑 아랑 줄어들어요, 축약입니다.

자음축약, 모음축약 하나씩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축약 걸렸어요.

ㄱ과 ㄴ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거로,

홀이불을 들 수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맞습니까?

일단 ㄴ이 첨가돼야 돼요.

ㄴ이 들어오고 ㅌ은 뭐로 바뀌니까?

ㄷ으로 바뀌어요, 음절의 끝소리에 의해서.

그러고 나서 비음화가 한번 더 벌어지는 거죠.

따라서 1번에 ㄱ과 ㄴ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게 맞죠.

그다음 2번, ㄱ과 ㄷ은 모두 교체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음절의 끝소리도 교체고 된소리되기도 교체 현상 맞죠.

다음 3번, 애네 둘이 벌어진 현상으로는 이게 있대요.

없다.

그러면 ㅍ이 ㅂ으로 바뀐 거는 음절의 끝소리고

ㄷ이 ㅌ으로 바뀐 거 교체 된소리 현상 맞죠.

다음 4번을 보게 되면, 낱다나 와서를 나눠주는데.

그렇죠, 낳다는 자음축약, 와서는 모음축약 맞죠.

이제 5번 갑니다.

와서와 같은 예로 집에 가를 들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밑에 하나 적어놓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오다에 아서 어미가 붙어서 와서가 되는 경우랑

그다음에 가다에 아서가 붙었을 때 가서가 되는 경우.

보이죠?

결국에는 어간이 1음절이고 어미는 2음절 짜리였어요.

1음절, 2음절 짜리의 어간, 어미가 붙었는데

결론적으로는 3음절이 안 나오고 음절의 수가 줄었어요.

전부 다 2음절 짜리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음절 수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절 수가 감소하는 게

꼭 같은 하나의 이유 때문이라는 거는 아닌 거죠.

애는 뭐에 의해서?

축약에 의해서 음절 수가 감소한 거고.

애는 뭐에 의해서?

동음 탈락에 의해서 음절 수가 감소한 거예요.

그러면 질문.

우산을 펴서.

그다음에 TV를 켜서를 질문할게요.

우산을 펴서, TV를 켜서.

애네들도 음절 수가 결국 감소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축약이에요, 탈락이에요?

축약일까요, 탈락일까요?

잠깐 멈춰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답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이것을 놓쳤을 때 선생님, 이거 축약입니다.

축약이에요.

아니요, 둘 다 탈락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틀린 거냐면 원형을 몰라서.

우산을 펴서, 라는 단어에서 펴서를 사전에서 찾으려면

뭐를 찾아야 돼요?

피다를 찾습니까?

꽃이에요?

아니예요, 이거 원형이 피다죠.

이게 이 차이에요.

피다로 생각하는 순간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

만약에 우산은 피는 거 아니예요?

피다 더하기 어서, 결합해서 펴서 나온 거네?

그러면 이거 축약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모음축약.

그런데 애 축약 아니예요.

왜? 원형은 피다예요.

그러면 피다 더하기 어서 했을 때 뭐가 지금 빠진 거야?

빠진 거죠, 그냥.

탈락이에요.

탈락입니다.

즉 이게 축약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라고 생각해서예요.

이거는 꽃이에요.

우산을 펴는, 기지개를 펴는 거예요.

기지개를 펴는 게 아니야.

우산을 펴는 거고 기지개를 펴는 거야.

똑같아, TV를 켜는 거죠.

키는 게 아니라 켜는 거죠.

알겠어요? 키는 게 아니라 켜는 거라고요.

만약에 TV를 키다로 생각했으면

키어서 축약이네, 실수하는 거예요, 그런 게.

TV를 켜서이고 결국 어서랑 붙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다?

탈락이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탈락이야.

이런 거는 실수하는 이유가 기본형을 자꾸 실수해서 그래요.

한국인이 아니야.

다음 거.

14번 갑니다.

보기에서 설명한 음운 현상하고 관계가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지금 보기에 동화 현상 안에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그래서 이거 세 가지가 바로 동화라는 현상 안에도

설명이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1번은 구개음화에 들어가고요.

3번은 유음화.

4번, 비음화.

5번, 구개음화 맞죠.

그러니까 결국 2번은 이런 동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 첨가 현상으로 설명해줘야 되는 거죠.

↳ 첨가와 연음 현상으로 설명해줘야 되는 내용이니깐 됐습니다.

15번, 이것도 애정해.

15번 문제 선생님이 애정합니다.

이 문제 참 좋았는데 왜 좋았냐면

그냥 단순히 음운변동 현상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동사와 형용사, 어간, 어미의 관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인지해라.

이런 이야기였어요.

우선 (가)에서 거센소리되기의 조건인 A하고 B를 찾는 것은 해줘야 돼요.

이것까지는 여러분이 해줘야 돼요.

이거부터 못 찾으면 그거는 좀 답이 안 나오죠.

여기에 발음이 이곽이 되고

애가 조타머가 되는 현상들이 거센소리 현상으로 발생한 거니까.

이거까지는 여러분이 해결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다음 거예요.

c, d, e.

축약이 이루어졌다.

그거까지는 좋다는 거야.

그래서 그 축약이 (나)나 (다)가 무슨 설명이야?

어간에서만 축약했냐, 어미에서만 축약했냐,

어간과 어미 사이의 축약이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어.

즉 이 문제는 어간과 어미를 잘 구별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문제예요.

어떻게 정리됩니까?

나누다 더하기 었 더하기 다죠.

애는 뜨 더하기 이 더하기 게가 되는 거죠.

다음 애는 보 더하기 이 더하기 었 더하기 다.

1차적으로 뭐가 돼야 돼?

형태소 구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다음 조건은 뭐야? 어간, 어미를 잘 찾냐는 거죠.

여기서 어간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서 어간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서 어간 어디까지?

여기까지 잡아야죠.

어간 앞에 있는 어근.

어말, 어미 사이에 끼는 높은 접미사이거나 아니면 선어말어미.

선어말어미의 두 가지 종류는 시제와 높임.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해야 돼 사실, 품사 이야기할 때.

애랑 애가 선어말어미죠.

애네는 뭐예요?

접미사죠.

사동이나 피동을 만들어주는 접미사.

그러면 접미사의 영역은 어간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죠.

나눠다가 만들어질 때 어디서 축약이 발생했어?

어간하고 어미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높이에요.

뜨이게가 된 거는 뭐죠?

어간에서만 지가 축약이 된 거죠.

사이에서 발생한 게 아니야.

보였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발생한 거죠.

차이를 구별해야 됩니다.

c하고 e의 경우에는 어간, 어미 사이에서 축약이 일어났고

d의 경우에는 어간에서만 축약이 일어났고.

이 문제가 너무 괜찮았어.

그리고 언젠든 수능형으로 잘 만들어질 수 있을

괜찮은 문제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 문제 선생님이 굉장히 애정해요.

그다음 마지막 16번 가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으로 자음 동화 설명 나와있는 거 쉽고

선생님 설명 잘 봐요.

그 밑에 선생님 설명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음운의 첨가랑 원래는 없던 소리가 첨가되어 발음하는 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맨입으로 알려줄 수 없다에서 맨입은 맨닙으로 발음됩니다.

합성어, 파생어에서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이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있죠?

그게 여기 나옵니다.

합성어, 파생어일 때 앞말에 받침이 있고.

즉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가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경우에

ㄴ 첨가 되기 때문이지요, 여기에 사선.

그 사선.

그게 일명 이거예요, ㄴ 첨가 현상.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런데 그 뒤에 또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ㄴ이나 ㅁ으로 시작되는 경우에도

앞말의 끝소리 ㄴ 소리가 첨가됩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ㄴ 소리가 덧나는 상황.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이 ㄴ 덧나는 사잇소리 현상.

이것도 그냥 첨가 개념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로.

이거는 그래서 굳이 구분을 잘 안 하려고 해요.

ㄴ이 덧나는 거는 조건이 더 간단합니다.

일단 첫 번째, 합성명사인 거는 당연해요.

아까 전에 이거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거 다시 조건 보세요.

ㄴ 첨가는 합성어나 파생어, 더 넓어요.

애는 파생어 안 돼, 합성어여야만 해.

그런데 합성어 중에서도 합성명사여야만 해.

사실 더 좁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합성명사면 A랑 B가 조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조건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요.

뭐냐하면 받침이 없어야 된대.

애는 위에 거 보세요.

앞에 자음 받침이 있어요.

앞에 자음 받침이 있다고.

애는 합성어나 파생어.

어쨌든 애도 A와 B의 결합인데,

여기에 받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한대요.

그런데 애는 앞에 받침이 없어요.

뒤에 거 ㄴ, ㄹ 아니어도 좋아요.

이렇게만 해도 구별이 되는데, 애랑 애랑 구별이 되는데

이 사잇소리는 이 자리에 받침이 없고

이것도 똑같아.

아까 된소리 나는 것도 여기에 울림소리가 와야 된다고 했는데

ㄴ, ㄹ, ㄱ, ㅇ이 받침으로 와버리면

받침이 차지하고 있지만

모음으로 끝났다는 이야기는 받침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경우나 아니면 이렇게 받침이 없는 경우라면

그때 사이시옷을 써주는 거야.

그래서 사잇소리 현상에서 같이 끼들어가는 게

바로 사이시옷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이 되는 이유가

사이시옷은 만약에 있다,

그거는 사잇소리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된소리가 났든 ㄴ이 덧났든.

정리하자면, 마지막 문제입니다.

ㄱ부터 볼게요.

ㄱ, ㄴ, ㄷ, ㄹ, ㄱ

사실 지금 애네들은 전부 다 첨가 현상이에요.

첨가 현상이 일어났다고.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이 첨가 현상을 그냥 ㄴ 첨가랑

그다음에 사잇소리 첨가 현상이랑 구별하면

사잇소리를 빨리 찾으시면 돼요.

이중에 합성 명사이면서 앞에 받침 없는 거 찾으세요.

애 코 더하기 날이고

애는 이 더하기 몸이죠.

그래서 형태적으로 반드시 뭐가 잡히냐면 ㅅ이 덧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발음 상으로는, 우리는 발음 보는 거니까.

어떻게 되어있냐면,

코 더하기 날인데 발음 상으로 ㄴ이 덧난 거로 잡히는 거죠.

애도 마찬가지로 이 더하기 몸인데

발음 상으로는 ㄴ이 덧나는 것처럼 잡히는 겁니다.

그러나 표기 상으로는 사이시옷을 적어줘야 돼요.

그 외에 나머지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뭐에 해당하는 거다?

색 더하기 연필

딱 더하기 일

그다음에 물 더하기 약이에요.

합성어, 합성어, 애는 파생어예요.

그거까지는 몰라도 좋아.

어쨌든 결합된 단어라는 느낌은 오잖아.

그런데 앞에는 받침들이 하나같이 있어.

뒤에는 이, 야, 여, 요, 유일 때 ㄴ이 덧납니다.

그래서 발음들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애는 1차적으로는 ㄴ이 첨가됐다가

다음 과정에 ㄴ이 비음화되겠죠.

생년필, 이렇게 두 번 변화가 주어지는 거고요.

애 같은 경우 ㄴ 첨가 한 번 벌어졌다가

ㄴ이 ㄱ에 영향을 주어서 망닐로 변화되는 거고.

애도 ㄴ 첨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유음화가 벌어집니다.

앞에서 뒤로 가는 거죠.

그래서 몰락,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겠네요.

왜냐하면 ㄴ 소리가 첨가된 다음에

ㄱ의 영향으로 ㄱ이 비음화되었다고 했는데

ㄴ이 첨가된 이후에 ㄱ이 왜 애한테 영향을 줘니까?

ㄱ한테?

여기가 애한테 영향준다는 거는 금시초문이죠.

우리는 이렇게 영향주고 받고 하는 거잖아요.

잘못 말하고 있는 거를 알 수 있었습시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러한 구성의 문제가 출제되고는 했던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음운변동 문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 좀 더 할 건데,

일단 이번 시간에 정리를 더 한다고 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한 거라고 본다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 실력을 믿고
그리고 간단하게 할 거는 넘어가고 할게요.
마치겠습니다.